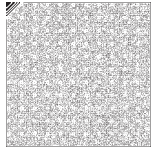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286호 2020년 5월 24일(가해)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 송 | 사도 1,11 참조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1-11

화답 송 | 시편 47(46),2-3,6-7,8-9(◎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

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 에페 1,17-23

복음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 마태 28,16-20

영성체송 |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허영엽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몇 년 전 동생 신부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달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례 초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걷는데, 보름 정도가 지나면 걷는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혼자서 끝도 없는 들판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채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동생은 아침부터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걷다가 오후쯤 시원한 그늘이 있는 숲속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 숲속에서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돌아가신 부모님과 만남에 대해서 동생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의 순간이 떠올라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리가 믿는 부활의 체험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을 여의는 것을 흔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깊은 구렁 속에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

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이 큰 슬픔을 이겨내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의 완성,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세상과 천국을,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어주고 서로 통교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사흘날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1980년부터 주님 승천 대축일을 홍보 주일로 정해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홍보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믿음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지닙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홍보하고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갈릴래야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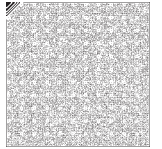
밤새 많은 눈이 내린 바닷가 이른 아침,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나라. 그분은 어둠과 죽음, 죄와 고통을 온전히 이기셨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심과 같이...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이수정 데레사 | 경기대학교 교수



| 어른이라는 것?

가족의 달인 5월을 위한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한 언론사의 기사를 만났습니다. 근래에 발생했던 아동, 청소년, 그리고 가족 간의 범죄 사건을 이야기하던 끝에 마지막 이슈라며 던진 질문은 ‘선생님은 좋은 어른이신가요?’란 물음이었습니다. 물론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성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겠지만, 제게는 갑자기 말문을 막히게 하는 의문문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어른이었던가?’

어젯밤 내내 그동안 만나본 어르신 중 가장 존경심이 우러났던 분이 어느 분인지, 그 사람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회상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제정에 주축이 되신 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의 위원장이신 김영란 전 대법관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를 떠올려보면, 애들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일은 한없이 조심스럽기만 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애들 선생님을 찾아가갈 때마다 고민했던 것은 다름 아닌 봉투였습니다. 당시로써는 관행적으로 얼마 이상은 넣어야 한다는 불문율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우리 아이만 무성의한 부모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필자도 교단에 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식의 인사가 좋지 않은 일이란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선생님에게 제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위험천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역시 올해에도 졸업생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언제나 식사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옛 스승을 생각하여 연락해오는 것은 고맙기 짝

이 없는 일입니다. 훌륭한 제자를 바라보는 것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일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물질적인 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김영란법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 간의 생활방식, 나아가 문화를 바꾸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쁜 관행들은 정말 잡초처럼 뿌리가 깊어서 속아내도 다시 자라곤 합니다. 하지만 입법을 통하여 이렇게 확연히 다른 규범을 공유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아이들 학교에 빈손으로 찾아가서 담임선생님과 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스승의 날에 선물이나 꽃, 상품권을 받는 일들이 이제 나쁜 일이란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적폐를 청산할 수 있었던 과정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입법과 새로운 규범에 순응하는 한국인들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코로나 이후 좀 더 정의롭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물질적인 가치로 서로의 존재를 입증하기보다는 그저 함께 있는 것이 가치로운 사회,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나라가 아닐지요?

를 이끄는
성경구절

구분은
산인들의
하느님이시며.
주키 20. 38 박철 베네딕도

박철 베네딕도 | 대치동성당



혼인성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천주교에서 혼인성사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혼인을 앞둔 천주교 신자나 가족들 모두 아래에 마련된 단계에 따라 혼인성사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STEP 1. 혼인 날짜 잡기

- ① 혼인 전 최소 3개월 전 성당에 혼인 가능한 날짜 여부를 문의(혼인미사가 많은 성당의 경우, 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예약해야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 가능함)
- ② 위치, 주차공간, 피로연장 확인 후 본당사무실에서 혼인신청서를 작성, 제출
- ③ 주례 사제는 혼주 측에서 모셔야 함 (늦어도 한 달 전까지 확정, 사무실에 통보)

STEP 2. 혼인 면담 신청

- ① 혼인대상자 교적지 본당사무실에서 혼인 면담 신청(혼인 면담 날짜를 잘 기억해둘 것)

STEP 3. 혼인 서류 준비, 제출(본당 사무실에 확인)

- ① 세례증명서
- ② 혼인 관계증명서(주민센터 및 관계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포함, 3개월 초과하지 않은 것
- ③ 교적사본
- ④ 혼인교리 이수증(수료 후 6개월 이내의 것)
- ⑤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 (교적을 두지 않은 성당에서 혼인할 경우)

STEP 4. 혼인교리 수강 및 혼인 면담

- ① 교구에서 지정된 성당에서 교육 실시
: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일정은 사목국 홈페이지 참조
: 예비부부를 위한 '약혼자 주말' 피정도 참조
- ② 약속된 날짜에 혼인 면담 실시
: 혼인신청서와 혼인 전 진술서 작성
: 관면혼(배우자가 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면담을 해야 함

STEP 5. 혼인성사

- ① 혼인성사에 앞서 내적인 준비를 위한 고해성사 받기
- ② 혼인 당일,
: 주례 사제 일정 재확인
: 증인 2명(신랑·신부 측 각 1명)
: 혼인 반지 준비
: 감사의 마음을 담은 혼인예물 준비
- ③ 미사와 함께 진행되는 혼인성사이므로 정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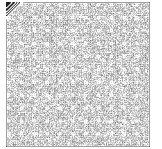
※ 한쪽만 신자일 경우, 관면혼인미사로 진행

※ 성당 외 장소의 경우, 결혼식 전 혼인성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사목국 기획연구팀

“남자와 여자가 혼인성사를 거행할 때, 하느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 모습과 변함없는 당신 사랑을 그들 안에 새겨주십니다.

혼인은 우리를 위한 하느님 사랑의 아이콘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서



“ 네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탈출 10,2) ”

제54차 홍보 주일을 맞이하는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들려주시는 홍보 주일 담화의 주제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세상일을 바라보면서 서로 연결된 실타래처럼 우리가 서로 엮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이야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은 직물을 엮어내듯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가 다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뱀이 우리에게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악으로부터 위협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현혹하고 있고, 행복해지려면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해야 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거짓에 사로잡혀 입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짜깁기하고 증오의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존엄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나쁜 이야기는 수명이 오래가지 않지만, 좋은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삶에 자양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참되고 좋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지혜와 거짓되고 사악한 이야기를 거부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서 첫째이고 하느님과 인류의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완성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곧 성경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사건들을 말하고 기억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번 홍보 주일 담화의 제목은 탈출기에서 뽑은 “네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탈출 10,2)입니다. 하느님께서 신앙의 선조와 맺은 계약을 기억하시고, 표징과 기적을 통해 선조들을 종살이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 탈출이라는 경험을 통해 그 후손들에게 주님을 대대로 알게 합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나온 짧은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언제나 시의적절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야기도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야기가 되셨기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이야기 안에 우리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 우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분께 말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새겨 주신 것을 증언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당신 품 안에서 엮으셨고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당신 삶으로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Francisco

오늘(5월24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제54차 ‘홍보 주일’입니다

교회 도서출판과 신문 방송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해 홍보 주일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홍보 주일’ 담화문은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제15회 ‘교육 주간’ 안내

2020년 교육 주간은 5월25일(월)~31일(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가톨릭 교육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합니다. ‘교육 주간’ 담화문은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5월25일 박일규 안드레아 신부(82세)
- 1984년 5월27일 이선표 요셉 신부(37세)
- 1993년 5월29일 김창석 타대오 신부(67세)
- 2005년 5월27일 이봉우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7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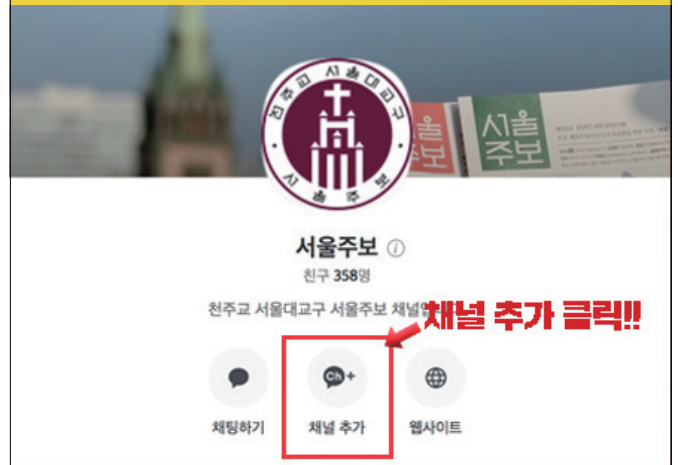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

서울주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서울주보와 교구소식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채널 QR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교구알림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6월8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태현 스텔라, 남경우 로무알도, 임지영 젤뚜라, 임창혁 크리스토폴, 정동원 요한 /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모집

한국스카우트·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 서울지구연합회 대원: 서울대교구 본당 주일학교 학생(6세~18세) 지도자: 서울대교구에 교적을 둔 성인 유의사항: 본당 사제 허가 필수(지도자는 면담 필요) / 문의: 02)762-0641(seoulscout@catholic.or.kr)

2020년도 후기 ‘인재양성기금’ 수혜자 공모

공모부문: 대학원학비 장학금 지원, 학위논문 작성비 지원, 국내·외 단기연수 및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 홈페이지 참고 / 접수기간: 6월1일~30일까지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문의: 02)727-2352 (www.forlife.or.kr)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교육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0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일반·편입학 2차 전형 원서접수: 6월1일(월)~11일(목) 전형일 6월27일(토) / 인터넷(www.jinhakapply.com) 접수 / 문의: 02)705-8668(<http://gsot.sogang.ac.kr>) / 석사: 신학, 철학,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 인원: 00명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성음악아카데미 모집

대상: 연령 무관 / 초급부터 최고급과정까지 / 과목: 오르간·피아노·반주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양상블(남·여)·그레고리오 성가·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기타 등 / 접수: 5월29일(금)까지 / <http://www.casm.site> / 때, 곳: 6월·7월·8월(3개월 수업),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 문의: 02)393-2213~5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상: 국내 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사회복지학 석사학위과정(4학기), 2급 자격증 취득, 1급 자격증 응시 자격 취득 /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중독 포함),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발달장애 포함) / 모집기간: 5월25일(월)~6월9일(화) / 면접일: 6월12일(금) 19시 / 이메일: dpt6010@catholic.ac.kr / 곳: 성모병원 내 성의회관(서초구 반포대로 222) / 문의: 02)2258-7723(<https://welfare.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인간 삶과 문화예술에 담긴 가톨릭 진리와 영성을 본격 연구하는 석사학위과정 / 곳: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서초구) 내 / 문의: 02)2258-7814(<http://gcs.catholic.ac.kr>) / 6월5일(금)까지 접수 / 네이비(추가정보): 문화영성대학원

문화영성전공	음악과 미술, 건축과 역사, 가톨릭 철학과 영성
사목영성전공 (신설)	사목에 필수적인 사회복지와 상담, 조직경영과 갈등관리, 생명, 가톨릭영성

직원모집

희망에코마을 선생님 모집

우리나라 최초의 발달장애인가족마을 8월 준공 예정에 따라 함께할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급여(4대보험 적용) / 문의: 02)982-8431, 010-9323-7203 김성구 신부(도미니코수도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조리직)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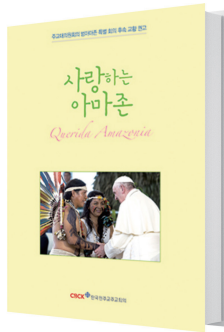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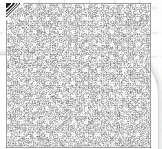
분야: 사제관 주방 직원 1명(정규직) /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소식 참조 6월10일(수) 14시까지 서류 접수 / 이메일(mano@cbck.kr) 문의

공덕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718-1040

인원: 사무원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PC(한글·엑셀)가 능한 교우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부서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6월6일(토)까지 방문·우편(우 0420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5-1) 접수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가능합니다



신간

사랑하는 아마존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88쪽 | 6천원
문의: 02)460-7582

2019년 개최된 주교대의원회의의 범아마존 특별 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인 이 책에서 교황은 아마존에서 영감을 얻은 네 가지 꿈을 말한다. 이 꿈은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차원에서 아마존이 지향해 가야 할 점이며, 아마존의 얼굴을 하고 그 지역에 구체적으로 투신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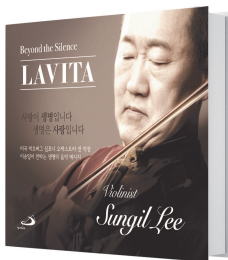


신간

우리 어머니인 지구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104쪽 | 6천원
문의: 02)460-7582

이 책은 인류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을 엮었다. 모든 창조물을 하느님의 선물로 보는 통합적 접근법의 중요성과 인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음반

LAVITA 라비타

이승일 연주
성바오로 | 1만5천원
문의: 02)945-2972

'라비타' 앨범에 수록된 곡들에는 이승일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존경하는 그의 스승 오스카 섬스키, 펠릭스 갈리미얼, 나탄 밀스타인 등 전설의 대가들로부터 이어받은 음악의 정신과 주법들이 녹아 있어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승일의 음악 세계를 전해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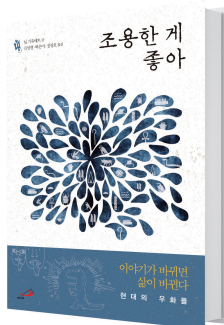


신간

생활 속의 기도 (개정판)

성바오로출판사편집부 지음
성바오로 | 424쪽 | 1만2천원
문의: 02)945-2972

새롭게 발간한 개정판 '생활 속의 기도'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현실에 맞추어 좀 더 깊이 공감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엮은 기도서이다. 가정방문의 목적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 알맞은 기도를 바칠 수 있게끔 다양한 기도문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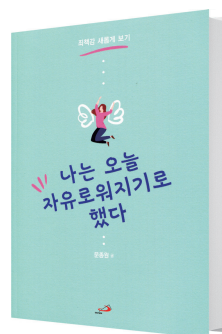


신간

조용한 게 좋아

닐기유메트 지음
성바오로 | 224쪽 | 1만5천원
문의: 02)945-2972

이 책은 연옥 생활은 어떤지, 왜 칼 마르크스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으며, 추기경은 연옥에 머무르라고 천사가 가로막는지를 우화를 통해 신랄하면서도 따뜻하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또한 어떤 사람이 성인이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지 등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알려준다.



신간

나는 오늘 자유로워지기로 했다 - 죄책감 새롭게 만들기

문종원 지음
성바오로 | 176쪽 | 1만2천원
문의: 02)945-2942

죄책감은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잘못했을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이다. 이 책은 분노나 두려움, 후회, 수치심 등 주변 감정들과 관계를 통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어둠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하며, 죄책감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 미사 참례 시 유의사항 】

■ 미사 전 준비

- 미사 참례자는 대성전 입장 전, 본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 조사장소에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 입장이 허락된 분들은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전으로 입장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해둔 지정석에만 앉습니다.

■ 미사 중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되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 중 회중이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거나 가능한 한 조용히 응답합니다.
- 성가는 부르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합니다.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미사 중에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예: 평화의 인사 등).
-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합니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아멘’ 합니다.
- 봉헌과 영성체 행렬 시 앞 사람과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 성경과 성가책은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미사 후

- 사용한 주보는 성당에 두고 가지 않고 가져갑니다.
- 미사 후에는 다음 미사를 위해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다음 미사 30분 전까지 대성전 출입을 통제하오니 미사가 끝나면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재확산 동향 등에 따라 상기 지침이 주보 발행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보와 함께 홈페이지 공지사항도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미사 재개에 따른 기타 방침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상설 고해소와 예비신자 교리학교 운영, 본당 제 단체의 모임과 회합, 외부 대관행사는 ‘계속 중단’됩니다.

◎ 성당 내 음식 및 음료수 반입 금지

성당 안은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장소입니다. 성당 안에서 음식물과 음료 등을 섭취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특히 영성체 한 시간 전에는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신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공복재)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	로	운	일	상	
생	활	속	거	리	두	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살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5월 11일 ~ 5월 17일 : 400,000원)

누계 : 1,530,015,123원

한 금 녀 : 100,000원 | 익 명 : 100,000원
조 경 수 : 100,000원 | 김 동 호 : 10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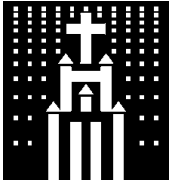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2020년도 교무금 책정·납부 】

2020년 4월 30일(목) 현재, 본당 19,347세대 중 2,670세대만이 교무금을 책정하였고, 이는 전체 대비 13.8%에 불과합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아직 못 하신 교우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책정·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실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 하셔야만 장애(납부자 확인불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 본당 사무실 업무 시간 임시 변경

시행일	화~토요일	주 일
4월 23일부터 정상화 될 때까지만	09:00-19:00	07:30-19:00



774-1784(☎)
753-1784(FAX)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지상술(힐 라리 오)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성모 성월 꽃 봉헌

과거 서양의 교우 가정에서는 5월 성모 성월이 되면 성모님을 위한 제대를 꾸미고 저마다 집에서 가꾸는 꽃들 중 가장 좋은 꽃으로 그 제대를 꾸미곤 했습니다. 꽃들을 보면서 성모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 그 분이 누리신 기쁨과 영광을 떠올리고 묵상하던 전통을 기리며 본당 사무실에서는 5월 한 달 제대와 성모님을 위한 꽃 봉헌금을 접수합니다.

※꽃 봉헌금도 기부금 처리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성모의 밤 취소

2020년 성모의 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과 예방을 위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너른 양해 바랍니다.

◎ 명동대성당 평일·주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요 일	미사시간	미사장소
월~토	10:00, 18:00	대성전
일요일	0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영어미사 없음.)	

※토요일 오후 6시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대성전 개방 시간

☞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주 일 :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체온 측정과 신원 확인 등의 사전조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 미사 한 대의 참례인원은 250명 내외로 제한되며,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주일미사 참례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중단됩니다.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 참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홍보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제54차 홍보 주일로 미사 중 대중매체를 통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사도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우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보 안쪽 면에 안내된 '미사 참례 시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해 주시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본당 수칙에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

(교무금을 은행에서 송금 또는 자동이체하실 경우)

현재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한 교무금 입금액이 다수 있습니다. 교무금을 은행에서 납부하신 적이 있거나 매월 자동이체 중이신 명동 교적 신자 분들께서는 성당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내방 가능한 분들은 납부하신 내역에 이상이 없는지 사무실로 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송금인의 성명과 더불어 생년월일(6자리)까지** 기재하여 송금(자동이체)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2. 또는 교무금 통장 앞면에 있는 신자 개인번호를 기재해 주셔도 납부자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말일은 송금(자동이체)을 삼가해 주세요 !
은행 납입분은 본당으로 내역이 넘어 오는 데 주말이 끼 있을 경우 약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5월 교무금을 31일에 송금(자동이체)하실 경우 6월분 교무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헌금을 포함하여, 성당 사무실에서 책정하신 교무금 납입금액과 송금(이체)액이 다른 경우 필히 성당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주일 2차 헌금 봉헌일 변경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 지향적인 신앙과 인성교육의 기본적 자원인 교리교재 연구·보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목적의 2차 헌금이 있습니다만 올해 청소년 주일 2차 헌금은 다음 주일이 아닌 연중 제 22 주일(8월 30일)로 이동하여 봉헌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5/11-5/17).....22,311,000
- 부활 제 6 주일 헌금.....9,491,230
- 감사헌금 (5/11-5/17).....972,000

김 미카엘 / 김 안드레아 / 선 헬레나
이 도로테아 / 임 사무엘 / 장 마리아
장 파비올라 / 정 세례자요한 / 조 요셉
차 아가타 / 현 베로니카